‘朴 출당’에 불붙은 보수 재편…정치권 ‘요동’

바른정당 8명 이르면 오늘 한국당행…여야 셈법 분주

민주 국회 장악력 약화·국민-바른정당 연대 차질 ‘우려’

자유한국당이 지난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제명 처리하면서 보수 야당 재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바른정당은 5일 의원총회를 하고 당의 진로를 논의했으나 탈당파와 자강파의 이견으로 탈당은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탈당이 빠르면 6일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탈당을 결행할 의원들의 규모는 8명이 유력하다. 탈당 이후 한국당으로의 복당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수 정치권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보수 재편 움직임이 원내 역학구도 변화는 물론 향후의 정계개편 흐름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제1야당의 몸집이 커지면서 여당의 국회 장악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또 국민의당 내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정책·선거연대 논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각각 흘러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다른 당의 일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이번 출당 조치를 계기로 한국당이 ‘친박’(친박근혜) 청산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앞세워 보수층 결집을 시도할 수 있다고 관측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보수통합에 속도가 붙을 경우 자칫 원내 1당의 자리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은 121석·한국당은 107석이다.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에서 15명 이상이 한국당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1당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이 민주당에 필적하는 의석수를 갖는다면 원내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원내 역학구도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하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내 한 관계자는 “어느 정당도 150석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은 마찬가지가 아니냐.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여당의 연대가 수월해지리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합류해도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정체성이 명확해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세 당이 ‘탄핵연대’, ‘신(新) 3당 연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는 달리 국민의당 내에서 반응은 다소 더 복잡하다. 우선 당내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추진된 ‘중도정당 연대론’의 동력이 조금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른정당 잔류파들과 연대논의를 하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보수층의 결집 흐름이 과거와 같은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를 뚜렷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런 부정적 관측과는 달리, 교섭단체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만큼 3당으로서 정국을 조율하는 역할은 더 중요해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탈당 한다는데… 바른정당 유승민(왼쪽부터)·정운천·박인숙·박유근·하태경·정문헌 당대표 후보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경선토론회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바른정당 입법·예산 공조 모드

방송법 등 6대 법안 처리 공동 추진…5·18 특별법은 합의 안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난 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통으로 추진할 6대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내놓는 등 본격적인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의 재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양 당 간의 연대가 강고하게 유지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정책연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이 협력해 추진하기로 한 6대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에 대해서도 양당이 앞으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두 정당간의 연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먼저 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5·18 특별법이나 선거제도 개혁법 등 핵심 법안이 6대 중점 처리 법안에서는 빠져 있다. 이는 정책연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울러 본격적인 ‘예산 전쟁’을 앞두고 재정건전성 고려와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사회간접자본(SOC)·농업 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 공통의 예산 심사 방안을 제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선거제 개편’ 띄우기

다당제 정착 위한 생존전략…바른정당과 연대 통한 압박 전략

국민의당이 다당제(多黨制) 구축을 위한 헌법개정 및 선거구제 개편 이슈를 띄우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 국내 정치 선진화는 물론 당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얻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구상이다. 특히,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커질 수도 있는 당원들의 원심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당제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것이 당의 생존을 위해 절실하다.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이 최근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당내의 절박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틈나는 대로 공식 회의 발언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당제가 시대정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對)국민 여론전을 펴는 동시에 공통의 이해를 가진 바른정당과 개헌·선거구제 논의를 지속해서 진행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해 나간다는 포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늘부터 429조원 ‘쩐의 전쟁’

내달 2일까지 예산심사…여야, 사수 vs 견제 대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약 한 달가량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새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뒷받침하려고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사수하려는 여당과, 선심성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검증과 견제를 벼르는 야당의 한판 대결이 본격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는 6~7일 내년 예산안의 종합정책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이틀간의 전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이후 나흘간의 부별 심사(경제부처 8~9일, 비경제부처 10일·13일)를 거쳐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 간 예산전쟁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마지막으로 한 달간의 대장정을 끝낸다. 각 상임위도 예산안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간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예산 항목을 볼 때 국토교통·행정안전·보건복지·기획재정 위원회 등이 특히 혈투 상임위로 꼽힌다. 국토위는 상임위 가운데 가장 먼저 ‘예산 전투’에 돌입했다.

1만 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 문제를 다룰 행안위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세법 개정안도 충돌 지점이다.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부담 확대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靑 첫 국감…조국 불출석 공방

野 ‘인사’ 도마에…與 ‘적폐’ 전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6일 열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상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다.

이날 국감에선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기관 증인으로 국감 출석 대상인 조 수석은 지난 1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 다수가 청와대를 비우는 상황에서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며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청와대의 잇단 인사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선 민정수석 출석이 절대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에선 박근혜·이명박 청와대의 적폐를 부각시킬 방침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비롯해 이전 청와대 캐비닛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른바 각종 ‘적폐’ 문건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정부 초대 조각 마지막 퍼즐 맞추나

이번주 청문회…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10일 홍종학 중기부장관

국회는 오는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문재인 정부 초대 조각의 마지막 퍼즐인데다 박성진 후보자 낙마 이후 38일 만에 지명된 탓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 설명하며 홍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쪼개기 증여, 중학생 딸과 엄마 사이의 차용증 작성, 학벌 지상주의 서적까지 의혹을 문제삼으며 청문회 전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는 8일에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됐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구성을 앞두고 있다. 유 후보자는 특별한 낙마 사유가 거론된 점은 없지만 보수야권은 그가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정 시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4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2017. 12. 16(토) 오후 2:40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